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5월 후원미사는 18일, 6월 후원미사는 15일, 7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20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41,338,206	전월이월금	8,988,000
지 로	1,859,460	우리은행	4,225,400
국민은행	6,248,000	하나은행	1,401,000
조흥은행	75,000	신한은행	1,410,000
외환은행	282,500	제일은행	295,000
농 협	2,668,000	기업은행	665,120
우 체 국	30,000	CMS	748,960
		교구보조	12,441,766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8,7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중국공동체	3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37,9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4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40,325,000	잔액(이월금)	1,013,206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20. 04 / 제46호

펴낸날 2020. 04.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인에서 부활을 맞이하며...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분들과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재의 수요일부터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미사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사순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성체도 영하지 못하는 힘겹고 안타까운 상황 안에서 저절로(?) 주님 수난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올해, 수난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한 맺힌 절규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27,46)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날 수난 시기와 부활의 때에 함께 미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의 절규, 외침이며 주님의 거룩한 성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안에서 자주 손을 씻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생명의 갑옷인 양 여기며**, 그것을 소중하게 때로는 집착하며 쓰면서, 주변의 낯선 이들 특히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아픈 이들을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며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자제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손 씻기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정화의 행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집어 쓰면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이들에 대한 함담과 빈말을 삼가고,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위한 배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세상 끝, **마음에서 멀어졌던 이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슬픔의 절규는 나의 삶이 위협받고 불편함으로 인한 가슴 아픔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힘겹게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향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우리 가족,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부활하여 세상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동감어린 눈물과 아파하는 마음을 청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우리 후원회원 분들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직원들과 수도자, 사제들은 매일의 작은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이주민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부활의 희망 안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공동체 소식

후원자를 위한 미사 소식*

코로나19로 모든 미사가 중단되어 지난달 1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교우분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저희 이주사목위원회 사제들, 수도자들은 후원회원 분들의 기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하였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민 관련 보도기사 소식*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20.3.26.〉

4월부터 지급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됐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3개월 뒤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조 3642억 원 규모로 경기도민은 약 1300여만 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24일 경기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대로라면 한국 국적이 없는 결혼이주민이나 등록 장기 체류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등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24일 발표 자료에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 출처 = 경기도)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5일 입장을 내고, "외국인 모두를 배제한 경기도의 기본소득지급 계획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한국 국민과 같음에도 외국인은 배제하는 것"이라며,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물론 한부모 외국인 이주여성도 배제돼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가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란 경계로 가르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이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지만, 24일 경기도 발표 자료에는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정확하게 외국인 제외라고 발표됐지만 경기도가 지급이라도 검토해 준다면 반가울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 함께 일하고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이주민들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 함께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로 국가별 공동체 미사와 각 시설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는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유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이어 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주사목위원회의 산하 단체들이 지난 한해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2019년 활동내용

1)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 2019년도 이용현황

인원	학년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초등 3학년	초등 4학년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 2학년	총 인원
남아		2	1	2	4	3	1	2	19
여아		3	0	0	0	0	0	1	
현재		5	1	2	4	3	1	3	

(2) 활동내용

- ① 보호 : 일상생활, 일상예절, 위생(건강)지도 및 교육 등 일상생활지도(매일), 치과검진(연2회), 독감예방접종(연1회), 위생건강관리(병원진료), 급식지도, 귀가지도, 5대 의무교육지도
- ② 교육 :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동에 대해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학습지원(수학, 재능교육, 영어, 컴퓨터 교육 등), 수준별 책읽기 및 독서토론 지도, 예체능 지원(미술 등 체육활동)
- ③ 문화 : 아동들의 욕구 및 지역사회연계로 연합행사, 체육행사 참여, 정기적으로 공연관람, 경제, 과학, 역사, 계절 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
- ④ 정서지원 : 아동상담, 가족상담
- ⑤ 지역사회연계 : 홍보 및 지역연계(성북나래 사업, 바보의 나눔 사업, 평화방송 촬영협조(자원봉사 홍보), VMS 자원봉사, 용문고등학교 다누리 봉사단, 신학생 사목연수 체험 및 개인 자원봉사, 성북아리랑정보도서관, 성북구보건소, (사)프리메딕 연계)

(3) 1년을 돌아보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니카라과, 몽골, 미국, 베트남,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필리핀, 프랑스,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부모와 여아 5명, 남아 14명, 총 19명이 방과 후 마고네라는 공동체 안에서 환대(인사, 일상생활), 보호(급식, 안전), 증진(교육, 문화), 통합(정서지원), 문화의 가치이래 안전하게 성장하고 체계화 되면서 문화수용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지원 소식*

코로나19에 힘들어 하고 있는 이주민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 단체들로부터 물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더 오브 몰타 코리아(Order of Malta Korea)와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부식류(쌀, 라면 등), 기관방역 및 소독용품, 마스크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한국이민재단 사업본부로부터 마스크 5,000장도 지원 받았습니다. 각 쉼터 및 기관마다 방역을 마쳤으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멈춰버린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